

日 체류중 도쿄외국어학교 교사 재직, 루미스 선교사 도움으로 성서 번역

■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위원회, 미공개 영어찬송 시 5편 첫 발굴-②

2026년 이수정 선생의 순교 14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자료집발간위원회(위원장 서부지역노회장협의회장 주문창 목사)'가 "개회기 성서 번역 개회기 조선의 마게도나인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의 첫 내한에 공헌한 이수정(李樹廷, Rjutei, 1842~1886) 선생이 1883년~1884년 초 일본에서 기독교 개종 후 집필한 한시 7편의 영어본이 묶음으로 온전히 발굴되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계에는 미국 성서공회 기관지(Bible Society Record, 1884년 3월 20일)에 실린 2편의 시 정도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1884년 2월 21일자 미국 기독교 주간지 '더

뉴욕 에반젤리스트(The New-York Evangelist)'에 게재된 7편의 시문학 유산 전체가 묶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수정 선생의 영적 고백이 담긴 찬송이 "이수정(Rjutei)"이라는 곡명으로 미국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미국 성도들에게 애창되며 선교를 촉구하는 매체로 쓰였음을 증명하는 중대한 교회사적 발견으로 평가된다.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연구 결과를 미션21이 3~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수정

〈지남호에서 이어짐〉

■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 자료집에 수록될 예정

이번에 발굴된 이수정 원작 7편의 영역본 사본과 그 한글역본, 그리고 곡명 'RJUTEI'(이수정) 찬송의 악보 등이 현재 발간 준비 중인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 자료집'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희귀한 찬송곡이 이수정 순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에서 널리 찬송되기를 바란다.

※ 첨부자료: 1915년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공식 찬송가집 《The Songs of Zion》 수록 제469번 'RJUTEI' 찬송 악보 및 1884년 《The New-York Evangelist》 게재 이수정 영문 시 7편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

▶곡명이 "RJUTEI"(이수정)인 이 찬송의 작곡자는 W. T. Dale이며, 작곡자는 앞에 소개하였던 첫 번째 시골 "I long have lived like one who dreams"로 시작되는 Desire To Teach Others의 구절들이 1절에서 2절 첫 부분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In songs of earth of every kind"로 시작이 되는 Harmony Of The Gospel 시의 구절들이 3절로 이어집니다.

1901년에 이수정의 시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서구 교회의 찬송가 책자에 "RJUTEI"(이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서 미국 교회에서 찬송되었다는 것은 개회기 지식인이자 신앙인으로서는 이수정의 문학이, 요점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은 물론 미국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한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RJUTEI"라는 표기는 1882년 9월~1886년 5월 무렵까지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 체류하며 그 기간 중 도쿄외국어학교교사로 재직하면서, 루

미스(Henry Loomis)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서번역을 하고 미국 교회에 선교사 파송 요구를 하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이 내한하게 되는 역할을 할 때, "李樹廷"이라는 이름을 일본어 한자음식으로 발음되는 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 찬송가 데이터베이스(Hymnary.org)에서 "RJUTEI"(이수정) 찬송 곡 악보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https://hymnary.org/text/i_long_hav

of Tokio, Japan" 표현에 대해서도 "이수정 작사 (일본 도쿄에서)"라고 표시함으로써 일본인이란 함축이 없이 당시 이수정 선생의 상황에 맞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여 국내에서 한글 번역본 악보를 활용하게 될 경우 오해가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첨부 : 1884년 《The New-York Evangelist》 게재 이수정 영문 시 7편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
이수정이 지은 7편의 한시들이 선교

THOUGHTS AND POEMS OF RJUTEI

There is in Tokio a distinguished scholar, who is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teachers in Japan. For some years he has been a teacher of the Chinese language, and also the head of the Normal School for Girls, establish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Empress. A short time since he wrote a poem in Chinese, which appeared in one of the newspapers. He has been a professed Christian; but

they will not accept an excuse, because i is just like a stone or tree from a strange country, which people value because i comes from a distant land, and without any regard for their want of beauty or real worth.

I hear people say that the writings of a Korean are like charms for avoiding any disaster, and i is the reason why many ask for my writing; but this is very foolish. When I am about to write anything, I am often perplexed as to what to write, because I compose very poor poems. One of these was published in the Yubin Shinbun, and many learned men praised it. But when I saw the paper, I was much surprised and ashamed.

Now I have read one of your poems, and I am very glad, I hear that your good name is noted as a teacher of morality, and your writings circulate everywhere. The words of noble men are very sweet to the taste, I have heard of you, and desired for a long time to meet you personally, but have not had an opportunity of doing so. But the reading of your poem is like looking into your face.

It is very strange that a man meeting a happy thing becomes very sad, and living in a lonely spot thinks it is a good place. But I am far away from my country and kindred, and recently I joyfully received religion. It is now my greatest desire to introduce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into my country, and to serve my king and people. But growing up among bad customs, I am not fitted for such a work, and I must ask for the help of

God.

I have composed some very poor poems. They have no taste or merit, and it is my purpose just to express the thoughts and desires of my heart. If these words of a rustic countryman receive one favoring glance, I shall be most happy."

〈한역〉

이수정의 사상과 시

도쿄에는 일본에서 선도적인 선생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한 뛰어난 학자가 있다. 수년 동안 그는 한문 교사였으며, 왕후의 후원으로 설립된 정규 여학교의 교장이기도 했다. 얼마 전 그는 한문으로 시를 한 편 지어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는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의 시에는 기독교적 사상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수정(Rjutei)은 그것을 읽고 그의 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제가 조선(Corea)에서 귀국(貴國)으로 온 지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선생들을 만나고 한 동안 많은 새 책들을 읽느라 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주 사상(詩想)이 떠올랐으나 이를 완성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이는 마치 반으로 잘린 무지개와 같아서 사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수정이 지은 7편의 한시들, 미 성서공회 기관지에 실려 그의 신앙고백적 문학이 동아시아 넘어 서구세계까지 확산

미국교회에 선교사 파송요구, 언더우드·아펜젤러 내한 큰 역할

e_lived_like_one_who_dreams

다음은 앞의 "RJUTEI"(이수정) 찬송 곡 악보의 가사를 그 악보에 표시된 C.M.D. 운율에 맞추어 한글로 번역한 악보입니다 (번역 : 송인동). 이 악보의 아미지는 별도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RJUTEI"(이수정) 찬송 곡 악보의 하단 설명에 W. T. Dale 작곡자가 "A Japanese Convert to Christianity"라고 악보의 각주에 잘못 적어둔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번역본 악보 하단에 "일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인에게 각주에 일본인으로 잘못 표시됨"이라고 참고주를 달아두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RJUTEI"(이수정) 찬송 곡 악보의 좌측 상단에 적힌 "Words by RJUTEI,

사의 번역을 거쳐 The New-York Evangelist Vol. 55 Iss. 8 (1884년 2월 21일: 6)에, Desire To Teach Others, Harmony Of The Gospel, Progress Of Christianity, Godness Of God, Praising Works Of God, The Bible Precious, Difficulties Of Preaching 등의 제목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로 그다음 달에 앞의 7편의 시 가운데 Harmony of the Gospel, The Bible Precious 등 두 편이 미국 성서공회 기관지 Bible Society Record Vol. 29 Iss. 3 (1884년 3월 20일: 40)에 실렸습니다. 이수정의 신앙고백적 문학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을 넘어 서구 세계로까지 확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원문〉

there was no Christian thought in the poem, When Rjutei had read it, he wrote to the author as follows:

"It is about ten months since I came to your honorable country [from Corea], Seeing different places, and visiting teachers, and for a time reading many new books, I had no time to compose any poems. Often poetic thoughts came into my mind, but seldom have I finished any such productions. It is like a rainbow when cut into half, and the thoughts do not remain.

Men often come to me to ask me to compose something, and as I am not skillful to write, I excuse myself. But often

- ▶ 조달청등록인증기업(최우수등급)
- ▶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 보유
- ▶ 음향 / 영상 공사 전문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
- ▶ 직접 수입을 통한 설계 / 시공 / AS 까지 직접 진행
- ▶ 타업체 LED 스크린 AS 가능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면 하나에 다 실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실적으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교회 환경에 최적화된 LED 스크린 시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을 더하는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시스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방송 영상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이노파크시스템 마동 301호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BI센터 503호
H.P 010-4138-7532 TEL 062-573-9997